

# 襄陽郡鰲山里櫛文土器遺蹟

白 弘 基

## 一、序言

一九七七年 九月一八日 襄陽郡巽陽面松田里에서 地表調査를 하던 중 中學生의 提報로 隣接部落인 鰲山里에서 櫛文土器遺蹟을 發見하였다. 이 遺蹟은 본래 雙湖 北邊의 砂成丘陵에 形成된 包含層이였으나 一九七七年 봄의 農業用灌溉水路工事로 因하여 遺蹟의 中態部分이 破壞되고 包含層이 攪亂되었으며, 이 包含層內의 櫛文土器片이 一帶에 널리 散在되었다. 筆者는 一九七七年 九月부터 다음해 二月까지 二회에 걸쳐서 地表調査를 實施하고 遺物을 採集하였으며 遺物은 現在 江陵初級大學博物館(前敎育文學)에 保管中이다.

東海中部地方의 櫛文土器遺蹟의 調査는 一九一五年에 日人學者 鳥居 龍藏 澤俊一等이 江陵의 土城址에서 土器片을 採集①한 以來 다른 遺蹟이 發見된 바 없었으나 一九六四年 任孝宰敎授가 溟州郡 領津里와 加屯 地에서 多量의 土器片과 石器를 採集하여 調査 報告② 하므로써 이 地域에서 더 다른 遺蹟의 發見이 期待되던 중 今般 襄陽郡 鰲山里에서 새 櫛文土器遺蹟이 發見되어 東海岸의 新石器時代 文化의 傳播經路와 性格과 年代를 究明하는데 하나의 資料가 追加되었다.

從來 慶南의 新石里에서 威南의 江上里까지 東海邊에는 櫛文土器遺蹟의 空白地帶로 생각되어 왔으나 領津里와 鰲山里等の 遺蹟이 發見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東津岸의 櫛文土器文化遺蹟은 더 많이 發見될 것으로 展望되는 바 遺蹟에 대한 豫備調査와 함께 學術的 發掘調査를 위한 遺蹟의 保存이 留念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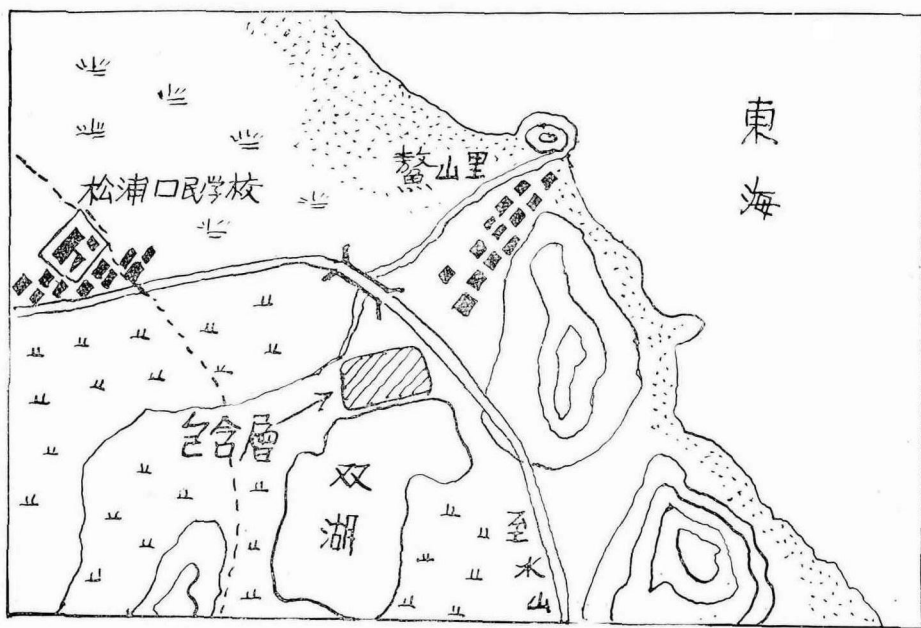


圖1. 遺蹟의 位置略圖



圖 2. 鰲山里遺蹟의 全景

一、遺蹟의 現狀

遺蹟의 位置는 襄陽郡襄陽面鰲山里로서襄陽 所在地에서 水山行 卽스를 타고 東南 方向으로 약 五 km 쯤 들어가면 松浦國民學校가 있고, 이곳에서 東南 方向으로 약 三〇〇 m 의 거리에 있는 雙湖北邊의 낮은 砂成丘陵이다 (圖一) 東海邊에서는 一五〇 m 의 거리에 있으며 襄陽 南大川의 下流域이다. 雙湖는 現在 土砂로 完全히 埋沒되어 田畝으로 開墾되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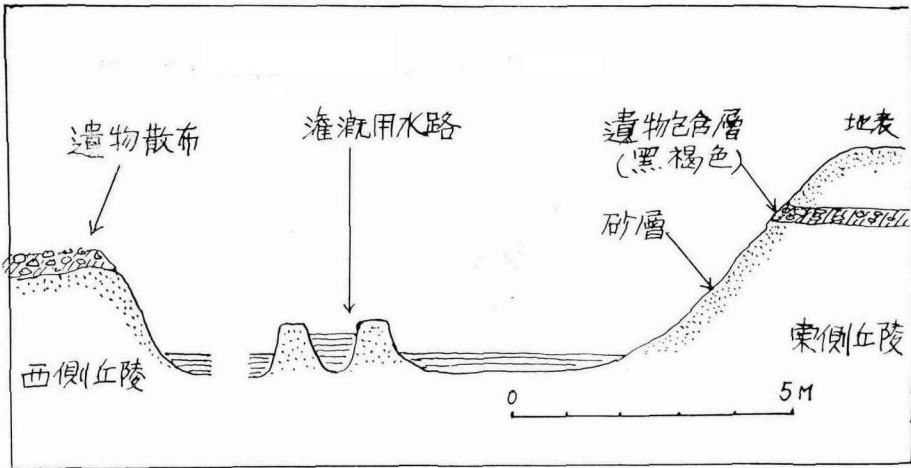


圖 3. 鰲山里遺蹟斷面略圖

그 北邊에 있는 遺蹟址인 丘陵은 이 田畝의 灌溉用水路工事로 因하여 中間部分이 完全히 斷切되어 西端部分과 東端部分이 남아 있을 뿐이다 (圖二). 따라서 遺蹟址의 본래 狀態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現在 남아 있는 東쪽 丘陵의 切斷된 斷面을 통해서 보면 丘陵의 높이는 약 三 m 이고 地表에서 一・二〇 cm 까지는 砂質土이고 그 밑에 약 一〇 cm 程度の 두께에 조그마한 礫石이 포함되어 있는 黑褐色 遺物包含砂層이 있고, 그 밑에는 다시 白砂層으로 되어 있다 (圖三). 한편 丘陵의 西端 殘存部分은 地表上에 黑褐色의 腐蝕土砂가 露出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表土層이 짙이고 包含層이 攪亂된 것으로 보였으며, 여기에 서는 炭火흔적이 있는 넷들이 散在되어 있고

土器片이 散布되어 있었다(圖三)。

이러한 遺蹟의 現狀을 通해서 볼 때 이 丘陵의 西南쪽 緩傾斜部分에 遺蹟包含層이 形成되어 있었던 것으로 推則되며 이 遺蹟은 工事に 依하여 全面的으로 破壞攪亂된 것 같았다.

이와 같은 丘陵의 變動으로 包含層內의 櫛文土器片이 一帶에 널리 散布되어 있다. 여기에서 一次 調査時 櫛文土器片 一二八點과 平底雙耳壺片 一點分(復原可能)、漁網錘 二點을 採集하였고、二次 調査時에는 櫛文土器片 二九一點、漁網錘 八點을 採集하였다.

### 三、遺物

#### ① 櫛文土器

여기에서 前後 二次에 걸쳐 採集한 櫛文土器片은 四一九點이었으나 完形으로 復原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도 없고 大部分이 작은 破片에 不過하였다. 破片은 大部分이 文樣片이나 無文樣도 六二點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無文樣片은 所謂後의 靑銅器時代의 無文土器와는 胎土質에 있어서 明白히 區別되는 것으로 鰲山里遺蹟에서는 砂粒이 混入된 無文土器片은 단 一片도 發見하지 못하였다.

胎土는 精良한 粘土質의 것이 大部分이고 細砂가 包含된 것이 약간 있으나 그 數는 많지 않다. 兩者間의 差異는 文樣面에서 前者보다 後者가 좀 더 粗雜하고 形式化된 것으로 砂質土器는 文樣上 後期の 것으로 판단된다.

色調는 褐色、紅褐色、黑褐色이고 不完全 燃燒로 器壁의 中心部가 黑色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器壁의 두께는 〇、五—一、二cm 정도이다.

器形은 完形은 없으나 器底片이 五點、口緣部片이 二九點이 있는데 口緣部片은 大部分 直立이고 그 斷面은 口形으로 모지게 잘리워진 것과 口形으로 된 것이 있으며 後者의 境遇에는 口緣部가 아주 輕微하게 內傾

혹은 外反된 것으로 추측된다(圖四)。 底部는 平底片이 二點、尖底片이 三點 있는데 平底는 모두 無文樣이고 胎土는 다른 文樣片과 같은 粘土質이고 크고 安全感이 있어 보인다(圖四、圖八의 上)。 尖底는 모두 文樣片이고 끝 부분만이 無文樣인 것이 一點 있고、 나머지 二點은 밑 부분까지 施文되어 있다(圖八의 下)。 이러한 土器片을 通해서 볼 때 鰲山里遺蹟의 櫛文土器의 全形은 直立口緣과 尖底의 典型的인 櫛文土器와 함께 이와는 異質의 平底臺形의 土器가 包含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製法에 있어서는 積輪法을 쓴 흔적이 뚜렷한 것이 一—二片이 있었고 表面은 대체로 반질하게 손질되어 있었다.

文樣은 口緣部片과 器腹部片이 區分되는 有文樣이지만 그 중에는 前述한 바와 같이 櫛文土器系의 無文樣片도 있다. 이러한 無文樣片은 直立의 口緣部片도 있고、 底部片도 있고、 口緣에만 三、四列의 點列文되 는 短斜線文을 施文하고 그 밑의 器腹部는 無文으로 놓아둔 土器片도 포함되어 있다(圖五의 ③ 圖六)

文樣的 種類를 보면 口緣部에 있어서는 平行短斜線文이 壓倒적으로 많고、 點列文、 瓜形文、 鋸置文 등이 있다(圖五、圖六)。 器腹部는 橫志魚骨文이 大部分이고、 斜格子文、 鋸置文 등이 포함되어 있다(圖五、圖七)。 그리고 一個의 有文口緣部片과 無文片에는 穿孔이 있다。(圖五의 ② 圖六) 施文方法은 口緣部에 있어서는 押捺 刺突陰刻 등이 器腹部는 押捺、 陰刻、 擦過 등이다。

#### ② 平底雙耳臺(圖九、圖一〇)

東쪽 丘陵에서 採掘한 것으로 口緣部와 底部의 破片이 없어졌으나 原形으로 復原이 可能하였다. 赤褐色의 精良한 粘土로 만들어진 口徑六三cm、 高一五、一cm、 底徑五、六cm 厚〇、六cm의 小臺이며、 兩肩部에 有孔의 把牛가 附着되어 있고 器表面은 磨研되어 있다. 이 土器는 文樣이 없으나 胎土質과 器形으로 보아 後의 無文土器와는 다른 櫛文土器系에 속하는 土器라고 생각되며 部分的인 器形의 差異는 있으나 春川 校洞土器③와 같은 類型的인 土器이다。



圖5. 文樣片の拓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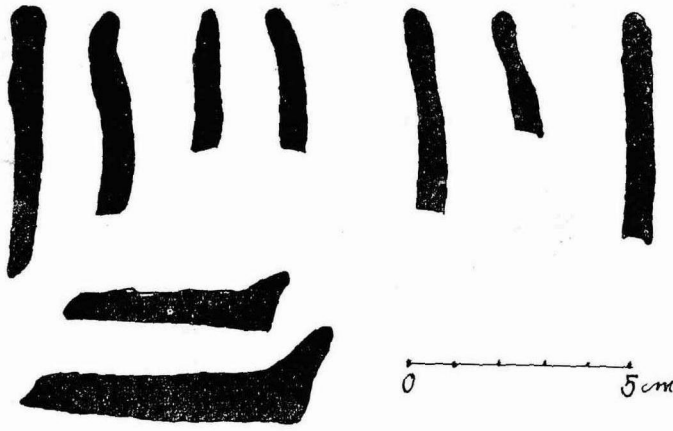


圖4. 櫛文土器의 口緣 및 底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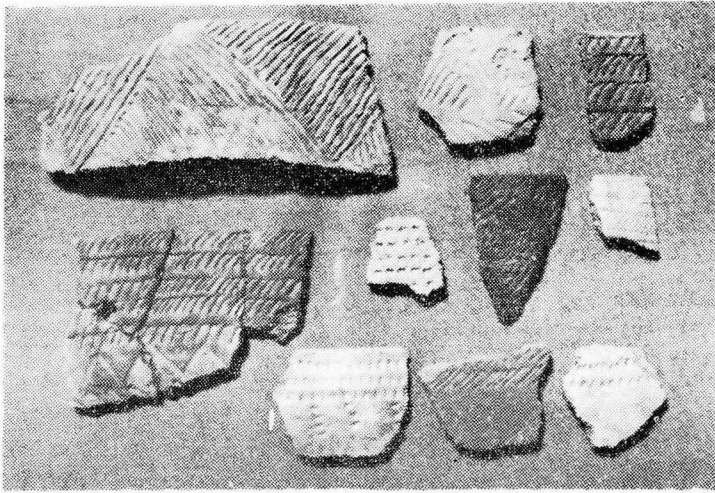


圖6. 口緣部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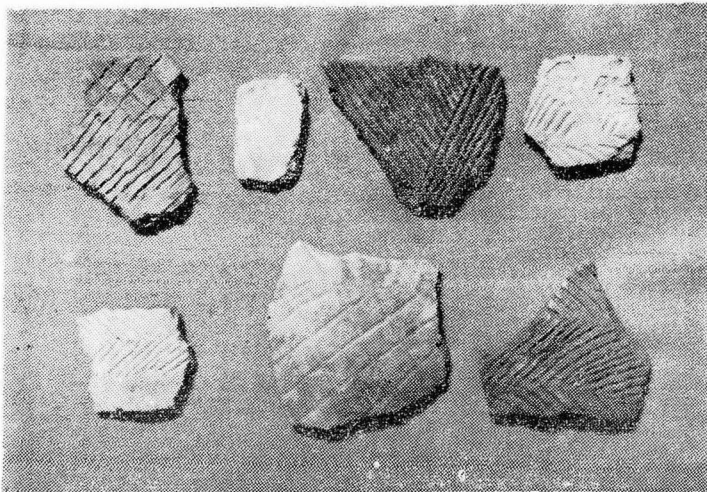


圖7. 器腹部片

③ 漁網錘(圖一)

前後二회에 걸쳐 末製品 四個를 포함해서 모두 一四個를 採集하였다. 모두 扁平하고 차그마한 礫石의 兩側을 때려서 실질기를 만든 漁網錘로서 大同江이나 漢江流域의 櫛文土器遺蹟에서 흔히 發見되는 보통 形式이다④.

四、結 言

熬山里遺蹟은 溟州郡領津里、加屯地등과 같이 東海中部 海岸地帶의

낮은 砂成丘陵에 位置한 典型的인 櫛文土器遺蹟으로서 南韓의 東海岸에 서는 最北端에 位置한 것이며 漁撈를 主로 하는 新石器時代後期人의 住居地였던 것으로 推測된다.

採集된 土器片에서 完形으로 復原可能했던 것은 平底雙耳壺 一點鏡 不過하여 이 遺蹟의 土器相을 完全히 把握하기는 어려웠으나 한 가지 明白했던 것은 熬山里遺蹟에는 두 系統의 櫛文土器가 包含되어 있다는 事實이다. 그 하나는 直立口緣과 尖底의 器形에 口緣部와 器腹部의 文樣을 달리하여 土器의 全表面에 施文하는 典型的인 櫛文土器이고,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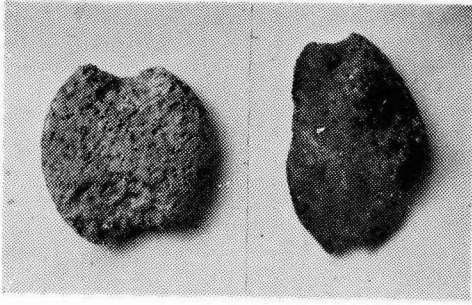


圖11. 漁網錘

器相은 春川校洞土器에서도 金元龍教授에 의하여 이미指摘된 바 있다⑧。  
 熬山里遺蹟의 이 두系統 土器의 先後 또는 共存關係 與否는 遺蹟의 層位構成을 통해서 明白히 밝힐 수는 없으나 東側丘陵의 斷崖에 露出된 遺物包含層에서 두 개의 層位를 認定할만한 差異를 發見할 수 없었고, 遺物包含層이 地表에 露出된 西側丘陵의 地表에서는 두系統의 土器가 混在하고 있었던點으로 미루어 보아 이 두系統의 土器는 共存關係에 있거나, 아니면 相互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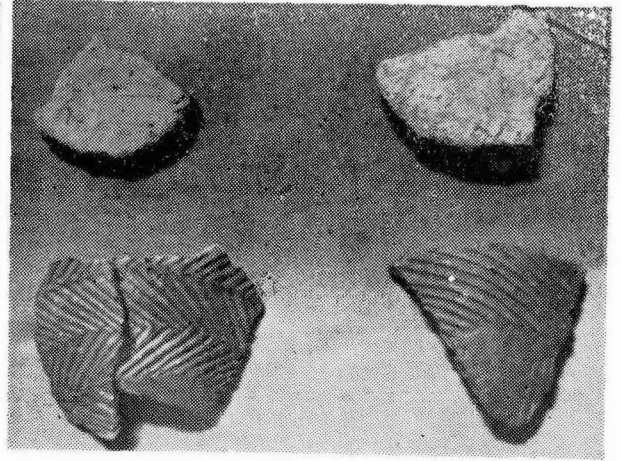


圖8. 底部片

하나는 平底壺形의 器形에 口緣部에만 施文하고 其他 部分은 無文으로 남기던가, 아니면 全土器의 表面을 無文으로 놓아두는 異質의 櫛文土器이다. 前者는 文樣의 要素에 있어서 漢江下流域의 岩寺洞이나 漢沙里의 土器와 類似하며⑤ 領津里土器와도 類似하다⑥. 그러나 後者は 沿海州土器의 影響을 받은 咸에 道土器의 特徵이 그대로 反映되고 있는 것이며⑦ 이러한 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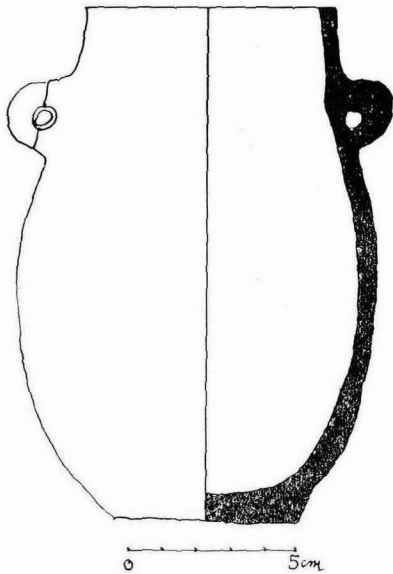


圖9. 平底雙耳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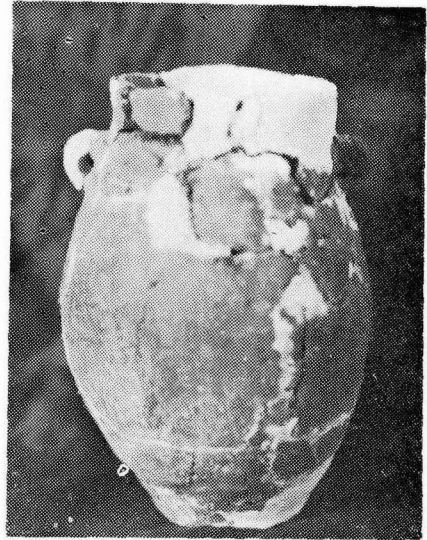


圖10. 平底雙耳壺

觸되었던 것으로推測된다. 그렇다면 鰲山里는 太白山脈을 橫斷하여 東海에 進出した 漢江流域의 土器와 東海岸을 따라 南下한 咸鏡道土器가 接觸된 遺蹟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이 春川校洞土器要素가 咸鏡道에서 流入된 通路가 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勿論 이러한 推定은 앞으로 보다 많은 資料의 追加를 通해서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鰲山里遺蹟은 破壞되고 攪乳된 것이었고 採集된 遺物 역시 土器에 局限되고 있어서 그 文化의 性格을 把握하고, 年代를 推定하기는 困難하나, 遺蹟의 位置와 地理的 與件으로 보아 韓半島에 있어서 新石器時代의 文化傳播와 移動을 究明하는 데는 注目할 만한 遺蹟이라 생각된다.

〈註〉

- ① 有光教一, 「朝鮮江原道の先史時代の遺物」考古學雜誌 28—11호 (考古學會, 1968) p. 718.
- ② 任孝宰, 「溟州郡領津里와 加屯地櫛文土器遺蹟」考古美術 7—6호 (考古美術同人會, 1969) p. 1—4.
- ③ 金元龍, 「春川校洞穴居遺蹟과 遺物」歷史學報 20 (歷史學會, 1963) p. 19—20.
- ④ 金元龍, 「岩寺里遺蹟의 土器, 石器」歷史學報 17, 18 (歷史學會, 1961) p. 378.
- ⑤ 金元龍, 「廣州漢沙里 櫛文土器遺蹟」歷史學報, 14 (歷史學會, 1961) p. 133—140.
- ⑥ 金廷鶴, 「韓國의 考古學」(河出書房新書, 1972) p. 31.
- ⑦ 任孝宰, 「前掲書」p. 1.
- ⑧ 有光教一, 「朝鮮櫛目文土器の研究」京都大學文學部 考古學叢書第3冊(1992) p. 29—51.
- ⑨ 金元龍, 「春川校洞穴居遺蹟과 遺物」p. 23.

江陵教育大學博物館長